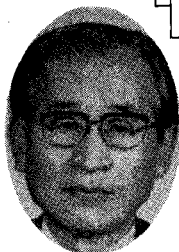


문제점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과 더불어」 함께 해결

성공 필수조건

배우는 열성과  
실천하는 성의



전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 명 호  
〈한국농촌의학회장〉

1. 농촌의 보건문제

도시의 급속한 변천에 못지 않게 근래 농촌도 많은 변천을 가져오고 있다. 눈에 떨 정도로 소득은 증대하고 의·식·주생활의 개선을 가지고 왔다. 농로는 「아스팔트」나 대부분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교통은 발달해서 극히 일부 도서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체 농어촌이 수도 서울로부터 1일 생활권내에 들어 왔다. 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섬지방이라 할지라도 DDD로 전세계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과도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생활이 이렇게 살기 편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암흑의 옛 시골이 광명의, 오늘의 천국으로 변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산업화나 도시화의 그늘 밑에 농촌은 손해보는 것도 적지

않다. 그 예가 농기구로 인한 교통사고, 수질이나 대기의 오염, 편리한 생활 때문에 나태심이 움트고 있다.

농촌의 보건문제도 문맹, 질병, 빈곤의 3중고(重苦)로 신음하던 옛날부터 존재해오고 있었다. 급성 전염병이나 장내 기생충병은 격감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다. 거기에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하나 둘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전술한대로 농업기술의 기계화, 농촌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고, 농약중독, 비닐하우스병, 성인병의 증가, 미혼모나 성병환자의 증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농어촌도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에는 제한이 있다.

예산과 인력 등 이상적인 정도까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본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의 계획 및 추진이 있다.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대책수립도 예외일 수는 없다.

## 2. 농약중독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 (1) 지역사회 주민(농민)에 대한 접근

#### 1) 주민의 파악

우리 역사회의 주민전통, 습관, 생활양식, 경제와 교육수준 등 연구할 사항은 많다. 그중에서도 생활철학, 정치에 대한 관심, 대정부 감정이나 태도 등을 살펴서 주민(농민)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교육시행상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주민의 본체를 파악도 못한 채 보건교육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그 성과가 의심스럽다.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만으로 그 내용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는 예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 2) 주민과 함께

보건교육적 접근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된다. 계획은 처음부터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농약중독예방에 관한 일이나 농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의 흥미나

관심, 문제나 요구, 더 나가서 희망이 표명되어야 한다. 주민을 위해서 (for the people)라는 생각보다는 주민과 더불어(with the people)라는 생각은 보다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

### 3) 주민의 배후기관(단체)및인물

보통 어느 지역사회에서나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배후인물이나 기관이 있게 된다. 보건교육을 주민들에게 추진할 때는 지방의 유지나 지도자의 영향력은 크다. 이와같은 인물로는 지방에서 봉사하는 병·의원의 의사를 비롯한 의료 또는 보건요원도 포함해서 시작할 수 있다.

이상은 보건교육을 하는데 있어 몇 가지 참고사항을 기록해 보았다. 재정도, 인력도 필요한 것은 많다.

### (2) 구체적인 보건교육의 실천

보건교육은 지역사회 주민을 여러 모로 나누어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1) 무지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이란, 설명이 필요없겠으나,교육을 못 받았거나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아도 보건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다. 무관심한 사람을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교육의 가치와 효과가 있다. 이 무관심한 사람이란 건강에 대한 무관심뿐 아니라 사람

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생활인지 모르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중에는 불행히도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 농민들 중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의미에서라도 이런 사람을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국민은 누구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가르쳐 주고 깨우쳐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이들에게 보건교육은 조심스럽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약중독은 생사에 관계되는 일인데 무관심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 2) 농약사용과 관계 깊은 사람들

우리 농가에서 원하든지 원치 않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잘못하면 농약중독을 당하기 쉽다.

농약중독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직접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 농가의 운가족, 농약의 생산·운반·보관·배급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경우든지,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아무데나 농약을 두어서 먹는 음료

수(우유)로 잘못 알고 마신 어린이가 죽는 경우와 같은 우발적인 사고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계속 반복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의 경우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농사철에 농촌에서, 그렇지 않아도 고속도로상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쉽게, 무방비나 보호없이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농민을 보게된다. 보건전문가의 입장에서 볼때『어떻게 해서 저럴 수가 있어』하며 충격을 받을 정도인데 농민 자신은 예사로 하는 일이다. 이것은 아무리 “안전벨트” “생명벨트” 하고 가르치고 호소해도 벨트가 없는 상태, 벨트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 벨트는 생각나면 썼다가 잊어버리고 쓰지 않는 상태등을 보는 것이나 흡사한 일이다. 선진국가와 우리와 아직도 격차가 있다면 법을 꾸준히 지킨다거나 배운대로 꾸준히 실천한다는 점이 아닐까?

이제는 우리 농민도 농약중독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완전히 보호하는 무장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것은 농민의 배우는 열성과 배운대로 실천하는 성의에 기대가 크다.